

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결핵 정책(1910-1945): 소극적 규제로 시작된 대응과 한계*

최은정**

1. 들어가며
2. 1910-1935년 조선총독부의 대응: 소극적 규제와 방지
3. 1936년 이후 조선총독부의 결핵에 대한 대응:
적극적 대응과 한계
4. 결론

1. 들어가며

보통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주도적으로 도입된 위생행정이 조선 사회 전염병 대응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이해된다. 즉, 보다 ‘합리적’이고 ‘과학적’인 서양 의학이 여러 질병들에 있어 높은 치료 효과를 보였으며 급성전염병의 경우에는 강제력을 동원하여 격리와 소독, 검역 등을 도입하여 빠른 질병 대응 체계를 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.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급성 전염병의 경우 이러한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지닐 수 있다. 그러나 급성 전염병과 달리 균 잠복기간이 길고,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결핵, 나병, 성병 등에 대해 이러한 주장이 성립되기는 어렵다. 결핵의 경우 일제강점기 시대 때 서양의학이 특별한 치료책을 갖고 있었던 질병이 아니었고, 오히려

*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(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)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(NRF-2010-371-E00002).

**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역사문화원

주소: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, 110-744

전화: 010-8748-6285 / 이메일: qchoiek@gmail.com

